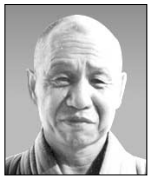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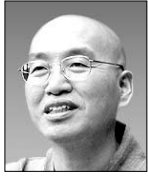
일주문



백담사 관내노인 초청 경로잔치
인제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은 6월 29일 지역 경로당 노인 150여 명을 만해 마을로 초청해 위문공연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



장애인 선수 초청 불교체형 행사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6월 29일 대구-북경 장애인체육교류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와 임원 30여 명을 초청해 불교 체형행사를 열었다.



제11차 역사기행 개최
종은닷컴 이사장 법률 스님은 8월 1-9일 고구려와 발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제11차 역사기행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를 개최한다.(02)587-8996



'내 안에서...' 출판회서 특강
공주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7월 5일 오후 3, 7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내 안에서 찾는 빛> 출판기념 특강을 한다.(02)737-7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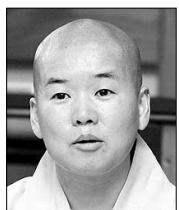
한파 스님 초청 개원법회
부산 성불사 주지 도원 스님은 6월 25일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이사장 한파 스님을 초청 법사로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다.(051)294-1204



대불련 대경동문회 성지순례
한국대교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 임해수 회장은 6월 26일 회원들과 함께 영주 부석사, 풍기 회방사, 안동 봉정사를 순례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지도법사에 중계 스님

6월 27일 일산불교병원 초대 지도법사에 중계 스님(前 낙산노인복지요양원장·사진)이 임명됐다. 중계 스님은 "우선 불자들에게 불교 병원을 널리 알리고, 700명이나 되는 병원 식구들의 신행관리·지도에 진력하는 등 지도법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곧바로 개원에 들어갈 탓에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중계 스님은 "병원이 필요로 하는 불교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유치하고, 정기적인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계스님은 "일산불교병원은 불자들의 염원으로 지어진 병원답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올바른 회향을 이끄는 지도법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계 스님은 91년 해인사 금강굴에서 대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운문사 강원을 나왔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노인복지와 임종간호 분야를 공부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남의 행복 먼저 챙겨요"

英 텐진 팔모 스님 내한 도선사 등서 강연

우리는 마음과 뜻, 말과 행동으로 삶에서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매일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불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초청으로 6월 28일 내한한 텐진 팔모 스님(사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의 실천"을 주제로 도선사 호국암회관에서 6월 30일 강연을 했다.

신에 대한 열매임,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남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바로 수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평소에는 우리 자신의 의견으로 마음이 딱 차있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집착 나만의 정체성을 의심하는데 이런 수행의 순간에는 나를 잡긴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태어나 티베트에서 출가한 스님은 "삼독심이 삶의 고통을 만들어낸다. 자비는 근원적으로 남들과 함께 느끼는 것이다. 남의 슬픔 고통을 내 것인양 느끼는 것이 자비이다. 자비는 불자의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나만의 삶이나 수행을 이루어 나가기 어렵다. 자기 자

비를 실천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역설한 텐진 팔모 스님은 "자신의 내면에 생긴 문제와 불안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이 내 마음 속 근본적 무지 탐심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남의 마음 속 일 역시 알아볼 수 있다"며 "자기 지혜가 같이 가야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법문했다. 텐진 팔모 스님은 봉은사 불광사 청암사 운문사 등에서 강연을 하고 7월말 출국한다. 김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의 내면에 생긴 문제와 불안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이 내 마음 속 근본적 무지 탐심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남의 마음 속 일 역시 알아볼 수 있다"며 "자기 지혜가 같이 가야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법문했다.

텐진 팔모 스님은 봉은사 불광사 청암사 운문사 등에서 강연을 하고 7월말 출국한다.

"폐사지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되길..."

장지현 시인 '잊혀진 가람탐험' 출판기념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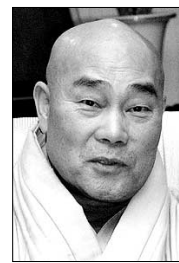
장지현 시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의 폐사지 탐사기 <잊혀진 가람 탐험> 출판기념회가 6월 27일 서울 송현동에서 열렸다(사진).

장지현 시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의 폐사지 탐사기 <잊혀진 가람 탐험> 출판기념회가 6월 27일 서울 송현동에서 열렸다(사진). 출판기념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다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신계륜 국회의원, 불이회 윤옥숙 명예회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시인은 인사말에서 "폐사지에 대한 발굴과 보존은 얼마든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만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답사를 통해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 민주평통 부의장 선임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사진)이 7월 1일 출범한 제12기 민주평화통일 자료회의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또 김음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은 복지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불국사 주지 종상, 파라미타정초년협회 회장 원택, 前 법주사 주지 지명,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지월,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출광, 성남 정토사 주지 보광,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호법부장 종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등도 직능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유철주 기자

"승가회합·재가교육 강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새회장 법혜 스님



"제책 정비와 기존 산하기관의 활동을 보완해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제9대 신임회장에 취임한 법혜 스님(대구 대각사 주지·사진). 스님은 "연합회가 재가자 교육과 대구불교회관 건립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 활동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사업에 전력을 쏟아 연합회가 지역 불교의 중심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뛰어난 강사를 초빙해 마하야나 불교대학(구 대구불교교육원)의 이미지도 바꿔갈 생각"이라는 스님은 재가자 교육을 강화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스님은 또 "불교회관에 일원불을 봉안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원불은 불교회관 건립 당시부터 지역 불자들과 약속했던 일. 이와 함께 스님은 불교회관 6층에 전불전을 조성해, 이를 바탕으로 신도교육과 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대구 동화사와의 신뢰관계도 다져나갈 방침이다. 법혜 스님은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자주 만나 상부상조할 일을 찾겠다"며 "만나다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혜스님은 1957년 도원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1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환경부장관에 대불련 출신 이재용씨



신임 환경부장관에 이재용 前 대구 남구정장(사진)이 임명됐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후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 장관은 서울불교화생회에서 활동했다.

"대화로 종교간 이해 도모"

조계종 종평위 상임위원장 손안식씨



"종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29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손안식 상임위원장(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사진)은 "대화"가 종교평화의 필수 요소라며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중앙신도회가 가톨릭 평신도회와 추진하고 있는 홀스데이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문제는 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손 위원장은 "종교편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종교평화 교육 활동을 벌이는 등 종단 내 교육홍보 사업에도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철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군포교 후원금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2005년 6월 28일 이사장실에서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에게 군법당 건립 및 군불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사장에서 홍승희 이사장은 "군불교 발전을 위해 진흥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후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서명 바자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정)는 6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 해성)과 함께 서울 광림사에서 '장기기증 서명 및 행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와 스님들이 참여해 필수기증 운동은 물론 바자회, 먹거리 장터, 수화공연 등을 진행, 원만 회향했다.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심마니 토종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자사 직접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생요소준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